전북농협과 전북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14일간 양재, 창동, 수원 등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5곳과 전주유통센터에서 순창 참두릅 홍보 판매전을 개최한다.

순창 참두릅 판로 확대

전북도-전북농협, 내달 10일까지 수도권 · 전주 유통센터 등서 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14일간 양재, 창동, 수원 등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5곳과 전주유통센터에서 순창 참두릅 홍보 판매전을 개최한다.

순창은 전국 생산량의 약70%를 차지하는 참두릅 주산지이며, 순창 참두릅은 봄나물 중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섬유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 B1, B2, C 등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한 나물이다. 특히 쌉쌀한 맛을 내는 사포닌, 아연, 셀레늄이 풍부해 봄철 약해지기 쉬운 체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판매전은 소비자들에게 전북농산물 '예담채'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김제 광활 햇감자를 시작으로 제철 맞은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매월 1~2회 특별판매전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도시농업 연구 분야별 최신 개발기술 공유

농진청, 오늘 부산시민공원서 설명회 열어

환경개선·교육·치유·사회문제 해결 등 도시농업 연구 분야별 최신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도시농업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8일 부산시민공원 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개발기술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 연구 분야별 산업재산권과 그동안 개발한 주요 영농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직정원 조성 사례와 수직정원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를 다룬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노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농업 정보(콘텐츠)를 소개한다.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공원 모형(모델) 같은 공공도시텃밭 조성 기술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부산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설명회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 누리집(dosinongup-busan.com → 박람회 LIVE) 또는 유튜브 '제18회부산도시농업박람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텃밭 면적은 1,060헥타르(ha)에 달한다. 도시농업 참여자는 약 184만명이며, 관련 단체 300여개가 활동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도시농업 개발기술 설명회는 지난해 개발한 핵심 성과를 소개하는 장으로, 직접 도시농업 활동을 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경민 본부장)는 27일 정읍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유)(대표이사 서현정)를 찾아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발굴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콩사랑과 기념행사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경민 본부장)는 27일 정읍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유)(대표이사 서현정)를 찾아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우수 농식품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농협은행만의 특별한 제도로 이날 행사에는 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김춘안 부행장, 장경민 전북영업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기업인 콩사랑(유)은 '싸리재마을'을 브랜드로 유기농 현미떡과 오트밀 등을 제조·가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가와의 상생 협력업체로 인정받아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모두애(愛)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콩사랑(유)에서 생산한 떡, 사과즙 등의 제품을 구입해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정읍시 복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을 지속 발굴해 우리 지역 농가와 동반성장하는 지역밀착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포장재 두께 · 색상 등 규제법안 철회해야"

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폐지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절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프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 구조, 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ESG 실천문화 확산 | 농어촌공 전북, 에코백 살리기 챌린지 131운동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7일 생활속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백 살리기 챌린지 131 운동'을 전주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과 함께 진행했다.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은 에코백 사용이 진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131회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쇼핑백, 비닐봉투 등 일회용 물품 사용을 지양하고 에코백 등 다회용백의 지역사회 공유를 통해 자원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당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백(에코백 등) 50여개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에코백 꾸러미(생필품) 50개 세트를 공유장바구니로 기부했다.

양정희 본부장은 에코백131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전북의 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가 꾸준히 지속돼 "에코백 기부를 통한 공유 장바구니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KT&G 전북지역본부를 챌린지 3호 기관으로 지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7일 생활속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백 살리기 챌린지 131 운동'을 전주 평화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일상에서도 저탄소 생활실천과 ESG경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전주삼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 들여야"

전북은행, 전주삼천초서 찾아가는 1사1교 금융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주삼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와 인근의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삼천초등학교 5학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용돈 관리, 세계화폐 그리고 금융권 진로에 관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론 교육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보드게임으로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진로 및 디지털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양질의 금융 교육 혜택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금융에듀테인센터 JB PLATFORM, 미래인재 위로 프로그램,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JB인문학 강좌, 어린이 스포츠 클럽, 3D프린터 지원사업, 희망나눔 사업 등 도내 미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LX 개최 상생 발전포럼서 잇따라 나온 제언

"기지제 관광 거점화… 정원화 사업 시급"
"전기자전거 공유 혁신도시 주차문제 해결"

"기지제 관광 거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지제가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경관관리가 되지 않아 정원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혁신도시 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이나 폐자전거를 활용한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지난 2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도 상생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혁시맘카페 등 지역주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사회공헌기관, 전북도창업지원기관 협의회, 지자체 등에 소속된 담당자들은 이날 상생발전포럼을 통해 지역상생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도시 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발굴, 온라인 맘카페 활동을 위한 장소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도 잇따라 나왔다.

LX공사는 지난해부터 상생발전포럼을 개최한 결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재생하도록 돕는 자원순환자활사업, 자전거 챌린지를 통해 탄소 저감을 하면서 기부하는 에코바이크 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LX공사 ESG경영처 서완수 처장은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혁신과 활력 창출을 위한 상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장소 협조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윤상기자

가정의 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40% 할인

전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 94개사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가족 사랑의 달'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먼저 우체국 쇼핑몰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에서 5월 17일까지 340여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전주 종합경기장 인근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에서는 5월 7일까지 200여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유호상기자